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순항'

민간전용 발사장 등 예타면제
예산 2,400억 확보 사업 탄력
발사체 앵커기업 등 유치 총력
항공 분야 주도권 선점 홍보도



공영민 고흥군수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지역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전반이 순항하고 있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민간 주도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으로 고흥을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했다.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내 유일의 발사장인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New Space) 육성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로, 민간발사장 구축, 우주발사체 국가산업 단지 조성 등 2031년까지 약 1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난 8월 23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민간전용 발사장과 발사체 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발사체기술사업화센

터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돼 2,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172만 9,176㎡(52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올해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8일 고흥군은 국토부를 비롯한 전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와 국가산업단지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통과를 위해 한화애어로스페이스 등 발사체 앵커기업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항공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미래 100년을 내다본 지역의 먹거리 산업 생태계 조성 행보를 가속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항공산업의 지역적 호기를 맞이해 드론·UAM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엑스포 행사장을 UAM존과 드론존으로 나눠 다채롭고 풍성하게 꾸밀 계획이다.

UAM존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실증기업에서 눈여겨 볼만한 UAM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로 전시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드론존에서는 현재 실생활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드론 기체 등이 전시되는 것은 물론, 국방 무인 정찰 드론까지 볼 수 있는 전시 공간과 드론팝매틀, 드론농구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공영민 군수는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비전의 기반이랄 수 있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발사체 기업들의 집적화로 고흥군이 명실상부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핵심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진중언 기자

"벼 작황 작년보다 웃돌 것" 여수, 1년농사 분석평가회

올해 여수시의 벼 작황이 지난해보다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6-7월 잦은 강우로 벼가 연약하게 자라 도복과 수확량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 없는 태풍과 8-9월 일조량 증가로 벼 작황이 작년보다 웃돌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최근 소라면 대곡마을에서 벼 수확에 앞서 한해 농사를 분석하는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에는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도·시의원, 농업인과 관계자 등 260여명이 참석했다.

벼농사 작황 및 품종특성,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등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고, 여수지역 적합 품종 선발을 위한 품종비교 시험포를 통해 신품종별 특성 등이 공유됐다. /여수=곽재영 기자



이순옥 고흥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강승표 성 다미안회 회장

고흥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간호 이순옥·봉사 성 다미안회

고흥군은 '제3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수상자로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간호 부문)과 천주교 제주교구 성 다미안회(회장 강승표, 봉사부문)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은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43년 이상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계승한 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해 지난 2021년 제정했으며, 간호부문과 봉사부문으로 나눠 부문별 1인을 선정, 상장과 시상금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간호부문 수상자 이순옥 회장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네팔 등에서 응급처치·위생교육, 간호봉사, 의약품 공급과 장학금 지급, 국내 비혼모 및 위기 영아 지원 등 국내·외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실천했다.

봉사부문 수상자 성 다미안회는 천주교 제주교구 소속 봉사단체로 1980년 창립해 소외계층과 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찾아 꾸준히 돕고 있으며, 1984년부터 매년 200여 명의 봉사자를 모집, 3박 4일간 소록도를 방문해 청소, 이·미용 등 나눔봉사를 실시, 한센병 환우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했다. /고흥=진중언 기자

보성 노인 돌봄체계 구축 박차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등 운영

보성군이 선제적 노인 돌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보성군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노인 돌봄 체계인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와 AI 돌봄 로봇 확대 보급,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성군은 지역 사회 예방적 노인 돌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9월 기준 대상자 2,890명에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장비 1,292대를 설치·보급하고 있다. 또한 시책 사업으로 어르신 정서 안심 케어 로봇인 AI 돌봄 로봇 40대 보급,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리 동네 홀로 계신 어르신 우리가 돌본다' 사업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는 집에 화재, 가스 감지기 등을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돌봄을 실시하고 응급상황 시 119요원과 응급 관리 요원이 출동하는 서비스다. /보성=백종두 기자

광양-포스코퓨처엠, 인재양성 힘 모은다

지역청년 채용 우대 업무협약

광양시와 ㈜포스코퓨처엠이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힘을 모은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청 접견실에서 ㈜포스코퓨처엠과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소재산업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 인재들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협의했다.

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 요구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인력 채용 시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훈련 사업으로 양성된 광양시 청년을 우대 채용하고, 인재 양성에 필요한 인성·상식·현장 교육·모의 면접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최근 포스코퓨처엠과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 제공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성장 동력 산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산업 변화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퓨처엠은 9,323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22년 11월 울촌산단 내 연산 9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종합 준공해 현재 협력, 용역인력 포함 800여 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지난 7월에는 산단 내 연산 5.25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 추가 투자를 결정했고, 향후 이로 인한 고용효과는 수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옥 기자

클릭! 고흥 속으로



엘리체 컨트리클럽, 춘양면에 선물세트 기부

화순군 춘양면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유희회사 엘리체 컨트리클럽(대표 이사 류재봉)이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달라며 선물세트 150개를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엘리체 클럽은 매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명절 선물을 나눠주며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엘리체 클럽 관계자는 "명절을 앞

두고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승 춘양면장은 "매년 명절마다 꾸준히 이웃 사랑을 실천해줘 항상 감사드립니다"며 "전달받은 물품은 소외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종백 기자



장흥 라이온스클럽, 성금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2지구장 흥라이온스클럽(회장 김기철)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장동면에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기부단체의 요청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가정에게 고루 지원될 예정이다. 김기철 회장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불우이웃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

겠다"며 "항상 변화하는 세상과 소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문수연 장동면장은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는 클럽의 따뜻한 마음과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며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전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담양 '지역사회복지인 어울림 한마당' 성료

담양군은 25일 "제8회 담양군 지역사회복지인 어울림 한마당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담양군 주최, 담양군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지역 사회복지사와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단합과 자긍심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최광암 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애임없는 후원과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향촌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노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 안전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묵묵히 노력해 주는 사회복지인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담양=정일남 기자